

이대목동병원 31주 조산 세쌍둥이 무사 퇴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시스템 제역할 ‘톡톡’

미숙아 합병증 추적관찰 등
6주간 집중관리로 안정 찾아
산모 “덕분에 안심” 마음 전해



이른둥이로 세상을 만난 이만후, 연후, 건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가 2019년 8월 17일 세쌍둥이의 조산 분만에 무사히 성공했다.

6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산모는 세쌍둥이를 임신한지 31주 5일인 8월 17일 새벽 5시경 이대목동병원을 찾았다. 앞서 1시경 양수가 터지는 느낌에 타병원을 찾았지만 조산 분만 가능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된 것이다.

진료 받은 결과, 산모는 양막파수로 자궁 내 양수는 적은 상태였으며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의 상승과 함께 산모에게 미열이 발생하고 태아의 심박수가 상승해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을 통해 세쌍둥이는 모두 건강히 분만했다. 하지만 산모는 자궁 수축이 약해 수술 및 약물적 치료를 시행했지만 자궁이 잘 수축하지 않아 출혈이 지

속돼 김 교수는 수술 직후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했다. 이후 산모는 다행히 출혈도 없고 경과가 양호해 퇴원할 수 있었다.

세쌍둥이 첫째 이만후, 둘째 이연후, 셋째 이건후는 31주 5일의 미숙아로, 각각 1.67kg, 1.8kg, 1.56kg으로 태어났다. 세명 모두 태어난 직후 폐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양압 호흡기의 도움을 받았으며 셋째 건후만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기관 삽관을 통한 기계 호흡에 3일 정도 의지했다.

이후 세쌍둥이는 약 6주간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다양한 추적관찰을 받았다. 호흡이 안정되고 수유량도 적정량으로 늘어난 세쌍둥이는 민후는 3.32kg, 연후는 3.53kg, 그리고 건후는 2.97kg의 건강한 몸무게로 퇴원할 수 있었다.

세쌍둥이 출산을 도운 김 교수는 “이른둥이로 세상을 만나게 된 세쌍둥이들은 물론 산모 역시 건강히 퇴원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쌍둥이를 무사히 품에 안은 산모는 이후 편지를 통해 “김 교수님께서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 불안해하던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주시고, 조수진 교수님은 매일 회진을 돌며 아이 상태를 살펴봐 주셨다”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아기들에게 애정을 갖고 밤낮으로 돌봐주시는 의료진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11병상으로 모든 병상은 1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진료 프로세스에서도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는 입구에서부터 음압격리실을 경유해 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췌장 세척, 소독, 조유 등의 간호 활동 또한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해 단계별로 감염을 차단하고, 오물처리 및 세척과 소독 또한 한 방향의 동선으로 구성해 감염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등 국내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산학협력 입주기업 모집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22일까지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에 입주할 산학협력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는 국제 첨단 융복합 메디컬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화여자대학교-이화의료원-이화의료원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의 강서구 마곡지구 이전 후 이대목동병원 내 의학관에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하고 입주할 산업체를 모집하게 됐다. 입주 기업들에게는 공용 연구장비를 지원하고, 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편의시설 이용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입주 기업 모집분야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의료분야로 오는 18일 현장 설명회를 갖고, 신청서 접수는 22일까지 받는다. /이세경 기자

라떼로 즐기는 홍삼 ‘정관장 진생치노’

KGC인삼공사 분말음료 도전장

KGC인삼공사가 본격적으로 홍삼을 활용한 신제품으로 분말음료 시장에 도전한다.

KGC인삼공사는 실내에서 간편하게 부드러운 홍삼 카푸치노를 즐길 수 있는 ‘정관장 진생치노(사진)’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정관장 진생치노’는 정관장 홍삼의 그윽한 풍미에 우유의 부드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만든 프리미엄 분

말음료로, 정관장 6년근 홍삼을 분말화 하여 홍삼 본연의 맛과 함께 고급 라떼크리머를 함유해 신선하고 진한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진생치노’는 정관장에서 운영하는 카페 ‘사퐁사퐁’에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메뉴로 이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도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지속

적인 요청으로 분말음료 제품 출시까지 이뤄졌다.

‘정관장 진생치노’는 기호에 따라 진생치노 그대로 즐기거나, 우유, 두유, 또는 스틱 원두커피 등과 함께 즐기면서 다양한 맛을 내는 것도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쿠팡 마켓플레이스 ‘스토어’ 새롭게 선보

쿠팡에서 자신만의 온라인샵을 손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들이 간편하게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스토어’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판매자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스토어’ 기능을 통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자동으로 쿠팡에서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다.

‘스토어’에서는 판매자가 실제 자신의 쇼핑몰을 운영하듯 원하는 프로모션을 직접 구성하고 상품을 노출할 수 있다. 또한 ‘스토어’를 오픈하면 자동으로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가 생성되는데, 판매자는 이 링크를 활용한 스토어 홍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와 제품을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위메프, 뉴트로 아이템 매출 급증

쫄면·냉동삼겹살·어글리슈즈 등 디카 14% 오를 때 필름카메라 388%

‘김희선 굿창밴드’, ‘쫄면’...90년대를 휩쓴 인기 상품들이 다시 온라인 쇼핑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뉴트로’(‘새롭다-New’와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 문화가 이커머스 시장까지 넘어온 것이다.

위메프는 뉴트로 열풍으로 올해(2019년 1월 1일 ~ 10월 31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다양한 복고 아이템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1990년대 배우 김희선이 착용해 유행했던 헤어 액세서리인 일명 ‘굿창밴드’는 446% 판매가 증가했다. 실핀과 똑딱핀도 각각 133%, 48% 매출이 늘었다.

투박하면서도 부피가 큰 것이 특징인 ‘어글리슈즈’도 매출이 756%나 올랐

다. 폭이 넓은 바지인 ‘와이드 팬츠’를 찾는 고객도 87% 증가했다. 이들 패션 상품들도 1990년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아이탬이다.

식품에서는 ‘냉삼’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삼겹살 매출이 전년 대비 77%, 대표 불량 식품인 ‘쫄면’ 매출도 39% 늘었다.

복고 디지털 기기를 찾는 고객도 증가했다. 조사기간 디지털 카메라는 매출이 14% 오른 반면 필름 카메라 매출은 388% 늘었다. TV와 연결해 이용하는 콘솔 형태 게임기인 레트로 게임기 판매도 103% 증가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뉴트로 컨셉이 꾸준히 유행하면서 카테고리별 넘나드는 아이탬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고객들이 위메프에서 다양한 뉴트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가격과 품질을 모두 갖춘 상품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경옥고’ 면역증강 효능, 국내 연구진 입증

배종섭 경북대 약대 교수팀

동의보감에 수록된 4000여 처방 중 첫 번째로 수록된 전통 자양강장제 경옥고가 인체의 면역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입증됐다.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배종섭 교수팀은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증강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경옥고를 경구 투여한 시험동물(생쥐)의 면역 관련 인자가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논문은 대한분초학회지 제34권 제2호에 수록됐다.

배 교수는 실험용 마우스를 네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면역억제제(MTX)를 투여하지 않은 채 경옥고만을 투여했고, 두 번째 그룹은 첫 주에 면역억제제를 7일간 먼저 투여하고 둘째 주부터 14일간 경옥고를 투여했다. 세 번째 그룹은 면역억제제(7일간)와 경옥고(21일간)를 동시에 투여했으며, 네 번째 그룹에는 첫 주

부터 21일간 경옥고를 투여하고 2주 후 7일간 면역억제제를 투여했다.

연구팀은 시험에 따른 경옥고의 면역증강 효능을 규명하기 위해, Th1계열 사이토카인과 Th2계열 사이토카인의 발현 수준을 확인했다. 두 계열의 사이토카인은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로 인체의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직접적인 면역 작용을 담당하는 비장세포의 총 수와 T 및 B세포 수, 대식세포 수를 측정했다.

시험결과 각 그룹에서 면역억제제 투여 시 Th1계열 사이토카인 수치가 떨어지고 Th2계열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아져 균형이 깨지고 각 면역세포 수가 감소했으나 경옥고 복용 후 균형이 회복되고 세포 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배 교수는 “육체 피로, 허약체질, 권태, 갱년기 장애 등의 적응증을 가진 전통 처방 경옥고의 새로운 효능을 입증한 연구”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러 ‘원클릭 살롱컬러 새치크림’

아모레퍼시픽 헤어케어 브랜드 러(LO)가 뷰티 살롱에서 염색한 듯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원클릭 살롱컬러 새치크림(사진)’을 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우수한 기술력이 트렌디한 컬러를 만나 탄생한 원클릭 살롱컬러 새치크림은 모던 딥 브라운과 시크릿 초콜렛 브라운, 워밍 마호가니 브라운 등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으며 브라운 계열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새치 커버는 물론 차분하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준다.

특히 특수 용기를 활용해 제1제(염모제)와 제2제(산화제)를 섞을 필요 없이 한번



에 쪽 짜서 꼼꼼하게 도포하고, 25~30분 뒤 샴푸할 수 있어 간편하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크림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인삼과 시어버터, 민들레뿌리줄기추출물 등 6가지 자연 유래 성분을 담아 두피, 모근, 모발을 보호하며 암모니아, 실리콘 등 유해 성분 6가지는 첨가하지 않아 자극적인 냄새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